

泉蓋蘇文傳 연구

이 상 원*

차 례

- | | |
|---------------|-----------------|
| I. 서 언 | 3) 인물의 제평가 |
| II. 역사의 재해석 | III. 구성과 양식적 특징 |
| 1) 영웅성의 강조 | IV. 결 언 |
| 2) 대외적 승리의 강조 | |

I. 서 언

개화기 전기문학 작품들은 역사적 영웅들의 업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특히 창작 전기들에서 보이는 뛰어난 武將들의 傳記는, 事實에 바탕을 두는 傳樣式을 계승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성이 변형되지 않고 그대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허구적 진실을 추구하는 소설과는 달리 사실성을 위주로 하는 傳의 양식을 이어받은 개화기의 전기작품들에 있어서도 역사적 사실의 문학적 재구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래서 필자는 申采浩의 「乙支文德」을 분석하여 역사인식과 허구화의 문제를 살펴본 바 있다. 그 결과 역사적 기록에 의한 단순한 史論의 차원을 넘어서 역사의 주관적 재인식과 재해석을 바탕으로 한 문학적 再構成性을 검증할 수 있었다.¹⁾ 물론 그러한 허구성 내지 再構成性이 농도질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작품에 따라 편차가 달리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朴殷植의 「泉蓋蘇文傳」에도 그러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白岩 朴殷植과 丹齋 申采浩의 전기작품은 그 경향에 있어 同軌

* 부산대 인문대 강사

의 것으로서, 「천개소문전」의 서술에 있어서는 필자는 단재의 영향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단재가 古代史研究로 유명한 반면 백암은 「韓國痛史」「韓國獨立運動之血史」등 근대사 연구로 유명하지만, 우리의 역사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두 사람은 한말에 언론계에 투신하여 애국계몽활동을 전개하였으므로 상호 영향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 또한 신채호와 박은식은, 민족주의적 독립정신을 교취하고 만주를 수복하여 大朝鮮國을 건설할 이념으로 1909년 1월에 重光된 민족종교인 大敎教의 영향을 받았고 또 그 신도로 활동하였다. 대종교는 고대로부터 전승되어 온 민간 신앙인 神敎 혹은 仙敎를 바탕으로 儒佛을 가미하고 여기에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영향까지 받아 근대종교로 부흥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만주를 무대로 하여 무장투쟁과 독립운동을 꾀던 대부분의 志士들은 대종교의 신도가 되었었다. 백암은 1911년 만주로 망명하여 지사 尹世復의 집에 거거하면서 「東明聖王實記」「渤海太祖建國誌」「夢拜金太祖」「明臨答夫傳」「泉蓋蘇文傳」「大東古代史論」등을 저술하였다. 그런데 윤세부이라는 인물은 1910년에 대종교에 입교하여 桓因縣에서 私財로 東昌學校를 운영하였고, 백암의 위 저술물들이 교재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백암은 실제로 1911년에 이미 大敎教團의 간부로 활약하고 있었다.²⁾ 한편 신채호가 대종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만주 망명 이전부터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망명 1개월전인 1910년 3월에 쓴 「東國古代仙敎考」³⁾에서 仙敎를 우리의 고유종교로 인정하고 그 연구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단재의 仙敎에 대한 인식태도는 大敎教의 그것과 상통하고 있는 것이다. 백암의 「천개소문전」에서도 연개소문을 고유종교인 仙敎의 부흥에 힘쓴 자주적

1) 참고, 「乙支文總」연구, 국어국문학 22, 부산대 국문과, 1984.

2) 大敎教敎經史編修會, 大敎教重光六十年史, 1971. 韓永愚, 1910년대의 申采浩의 歷史認識, 한우근박사정년기념사학문총, 1981 참조. 신채호도 1914년 尹世葦·尹世復이 운영하는 東昌學校에 참여하고 그 교재로서 「朝鮮史」를 집필했다. 단재와 백암은 한말의 언론 및 학회활동, 大敎教徒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대종교 경전과 그에 관련된 저술을 접하였을 것이고 그 영향을 받았을 것이 틀림없다.

3) 단재신채호전집 別集, 1977 참조.

인물로 파악하고 있어 대중교예의 傾到를 보여주고 있다.

백암은 우리의 고대사에 대한 인식이나 역사관에 있어서 민족주의적 색채를 가졌다는 점에서 단재와 공통된다. 본고에서 논의하려는 「천개소문전」의 내용은 단재의 초기 역사연구 결과인 「讀史新論」(1908)⁴⁾과 비슷한 부분이 많다. 특히 「독사신론」 중의 〈第七章 鮮卑族·支那族과 高句麗〉와 〈第八章 三國興亡의 異轍〉, 〈第九章 金春秋의 功罪〉 등은 「천개소문전」의 서술에 결정적 동기와 영향을 주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전기 서술의 근본적 태도나 英雄史觀, 삼국시대의 人物觀이 공통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독사신론」의 行文 일부를 그대로 옮겨 놓은 곳도 있다.⁵⁾ 한편 연개소문의 업적과 對唐鬪爭을 자세히 서술한 내용이 단재의 「朝鮮上古史」에 있으나 이는 「천개소문전」이 씌어진 1911년보다 뒤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영향은 받지 않았다.⁶⁾

이렇게 볼 때 「천개소문전」은 당대적 상황과 그에 대한 인식의 바탕 위에 단재의 고대사 인식 및 대중교예의 영향이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천개소문전」을 역사기록과 견주면서 분석하여 그 변형된 역사와 인물의 양상을 파악해 보고 나아가 그 양식적 특질에 대해서도 논급할 것이다.

II. 역사의 재해석

단재와 백암이 지은 전기들에서는 한결같이 역사의 주체세력을 뛰어난 인물로 생각하고 있다. 英雄史觀은 영웅전기 서술의 근원적 바탕이 된다. 그래서 백암은 신채호처럼, 다른 나라에서는 영웅숭배열이 대단하기 때문에 영웅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 국민은 영웅숭배열이 냉담하기 때문에 乙支文德

4) 大韓每日申報(1908. 8. 27~12. 13) 연재.

5) 특히 「천개소문전」(林殷植全書 中, 단국대출판부, 1975)의 pp. 320~21, p. 350에 重出하는, 연개소문에 관한 역사적 기록이나 언급이 「독사신론」의 그것과 거의 같다. 淵蓋蘇文을 泉蓋蘇文으로 기록한 것은, 당나라 사람들이 唐高祖의 이름인 淵을 피한 것을 답습한 것이다.

6) 단재의 광명후 국사연구는 대체로 1915~1924년의 약 10년간에 이루어졌다.

이나 李舜臣 등에 대한 기록도 많지 않다고 말한다. 영웅은 ‘邦國의 干城이오 人民의 司命’ 이어서 영웅을 냉대하는 국민은 결국 생존의 기초와 활동의 무대를 얻을 수 없다.”

그러하여 백암은 ‘영웅의 種을 박멸한 시대’인 조선조의 儒林과 귀족들을 비판한다. 그들은 唐宋人들의 浮文虛式을 숭상하고 권리를 남용하여 국민을 억압한 결과 ‘살 곳이 없는 민족’을 만들고 말았다는 것이다. 즉 拘儒曲士의 偏見淺識이 만고무쌍 영웅의 정신을 말살하고 亡國之境을 초래한 장본이다.⁸⁾

이는 단재의 경우처럼 사대주의 역사가들에 대한 맹렬한 비판의식과도 상통하는 바 있다. 또 우리 고대사에 있어서 백암은 遼瀋大陸을 先民의 터전이라고 보고 南北朝時代에 北燕王 高雲과 北齊의 高歡은 모두 고구려 왕족으로서 霸業을 이루었다고 서술하고 있다.⁹⁾ 이 점 또한 단재가 생각한 광대한 古代史領域의 인식 및 고대사 서술과 통한다. 상대적 차이는 있으나 백암도 고구려는 강대한 국가로서 漢民族과 대결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천개소문전」에서는 영웅사관에 따라 연개소문을 서술대상으로 선택했고 역사적 변천이나 사건이 영웅 개인의 힘에 의해 좌우된다는 인식에 따라 낭만적인 ‘역사의 개인화’¹⁰⁾가 나타난다.

1) 영웅성의 강조

「천개소문전」에서는 영웅사관이라는 관념적 요소가 실제로 전기 서술에 있어서 구체적인 歷史再解釋의 형태로 나타난다.

우선 가장 뚜렷한 것은 淵蓋蘇文과 唐太宗 兩雄의 共存을 마치 楚霸王과 漢高祖의 대결처럼 낭만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고구려와 당의 무

7) 천개소문전, p. 317.

8) 천개소문전, 〈서론〉 참조.

9) 천개소문전, p. 327.

10) 이재선 교수는 개화기 역사·전기류의 특성으로서 역사에 대한 낭만화와 상상력의 개입, 역사의 個人化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재선, 「실러와 開化期의 抵抗의 歷史傳記文學」, 韓獨文學比較研究 I, 삼영사, 1976.

력 충돌을 민족적 국가적 세력의 다툼으로 인식하지 않고 영웅의 대결로 인식한다. 따라서 唐帝의 來侵 이유도 ‘兩雄並世’로 설명된다.

蓋此役에 唐帝가 天下兵力을 擧하야 來함은 高句麗의 疆土를 貪함도 아니오 高句麗의 國民을 仇視함도 아니오 다만 蓋蘇文一個人의 愼을 洩코져 함이니 唐帝以下로 一般將卒의 敵意가 皆蓋蘇文의 愼에 在함즉 蓋蘇文以外에는 更히 抵抗함 者가 無함 줄로 思量하얏고……¹¹⁾

이처럼 연개소문과의 대결의식은 급기야 唐太宗뿐만 아니라 모든 唐兵의 敵意가 연개소문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또 安市城 싸움에서 패하여 귀환한 뒤에도 당태종은 여러 차례 화친의 使를 연개소문에게 보냈으나(역사 기록과 달리), 거절당하고 연개소문의 명성이 천하에 진동하는 반면 당태종은 忿恨과 시기로 不眠症勢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허구화되었다.¹²⁾ 뿐만 아니라 침입이 모두 패배로 돌아간 것도 연개소문의 大膽雄略의 결과로 파악되고 있으며 마침내 당제는 臨崩에 遺詔로서 요동의 役을 罷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물에 대한 영웅화의식은, 虬髯客이 검술에 뛰어나서 후일 당태종의 휘하 장수로 활약한 李靖을 가르쳤다는 傳奇的 기록과 ‘지금까지 北京 奉天 등지에서 개소문의 역사와 劍術로 演戲를 만들어 세상 사람들의 耳目을 진동하게 하는 사실’¹³⁾에 의거하여 개소문을 ‘古今無雙의 劍仙’으로 추켜세우는 근거가 된다. 개소문은 홀로 長白山에 들어가 數年 내지 10년 동안 검술을 익혀 絶代의 검술가가 되었고¹⁴⁾ 北으로 遼河를 건너 도탄에 빠진 海內生靈을 구제하려는 大志를 세웠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中原에 들어가 李世民을 만났지만 ‘人力으로 爭키 不可’하여 부득이

11) 천개소문전, p. 341.

12) 천개소문전, p. 349. 「唐帝가 天下의 大로써 東方一小國을 親征하다가 大敗而歸하얏슨즉……忿恨도 益深함 者오 又其時에 蓋蘇文의 威聲이 海內에 膾炙하야……唐帝의 猜憚하는 念이 種種丙枕이 不安하리라……」.

13) 천개소문전, p. 321.

14) 천개소문전, p. 325, 330 참조. 三國遺事 卷第三 寶藏奉老 普德移庵條에는 개소문이 나이 15세에 聰明하고 神武를 가졌다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神州大器(中原)를 그에게 讓與하였다는 것이다.¹⁵⁾ 그러나 개소문의 영웅적 기상과 예지, 자주적 천성은 강조된다. 개소문이 이세민을 쫓아 부귀공명을 누릴 수도 있지만 그에게 굽히지 않고 돌아오니, 이세민은 후일을 두려워하여 數十騎로 추격케 한다. 이에 개소문이 장검을 빼어 들고 怒目大喝하니 追騎가 모두 놀라 말에서 내려 늘어서서 절하고, 개소문이 '30년 뒤 遼東城 아래에서 다시 너희 주인을 만날 날이 있을 것'이라 말하니 모두 또 머리가 땅에 닿도록 공손히 절하고 돌아갔다는 것이다.¹⁶⁾ 또 연개소문이 고구려에 돌아와서 그 門下에 검사들이 雲集하니 豪族들이 두려워하여 개소문을 제거하려 한 것으로 서술한 것도 眞僞不明인 연개소문의 검술을 사실로 받아들여려는 작자의 생각 때문이다.

다음으로 백암은 연개소문의 쿠데타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는 당대와 같은 '貴族政治時代'는 政界의 公道가 파괴되고 사회의 公憤이 축적되어 나라의 인물이 쓰이지 못하고 나라는 마침내 망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귀족전횡시대에는 필연적으로 개혁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때 十部大人 등이 전횡하면서, 세력이 커지는 雄勇한 개소문을 해치려 하니 개소문이 거사, 十部大人을 배고 榮留王도 弑害하여 寶藏王을 세우며 남정북벌의 대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이다.¹⁷⁾ 그런데 삼국사기 열전 제九의 <개소문>에 보면, 개소문이 殘暴한 逆臣으로서 백성들을 괴롭힌 인물로 되어 있다.¹⁸⁾ 백암은 연개소문의 '霹靂手段'을 긍정적으로 본 반면 역사기록에는 그 잔인무도성에 초점이 맞춰져 상반되는 대조를 이루고

15) 개소문이 증원에 들어가 이세민(뒷날의 당태종)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虬髯客>(太平廣記 卷193, 豪俠類 1)에 자세히 실려있으나 野談에 가깝다. 郭夏信 譯, 唐代小說選, 乙酉文庫49, 1970.에도 「태평광기」소재의 내용과 같은 <구염객전>이 실려 있다.

16) 천개소문전, pp. 329-30.

17) 천개소문전, <第二章 泉蓋蘇文的 活動>.

18) 「蓋蘇文……其父東部大人對虜死 蓋蘇文當嗣而國人以性忍暴惡之……遂計虜位而凶殘不道 諸大人與王密讞欲誅 事洩蘇文悉集部兵……盡殺之凡百餘人 馳入宮弑王 斷爲數段棄之溝中 立王弟之子賊爲王 自爲莫離支……專制國事甚有威嚴……國人甚苦之」. 이는 唐書 및 舊唐書의 列傳 東夷와 資治通鑑 唐紀十二의 貞觀十六年條를 크게 참고한 기록으로, 중국측 입장에서 史料라 할 수 있으므로 그 진실성이 문제될 수 있다.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연개소문의 쿠데타는, 對隋戰爭 이래 성장한 北進南守主義의 軍部強硬派와 王弟 建武(뒷날의 榮留王)를 중심으로 한 對中國은전노선의 北守南進主義 간의 갈등에서 빚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¹⁹⁾ 따라서 쿠데타 이후의 대외정책은 강경노선을 추구하게 되고 麗·濟에 의해 고립된 新羅의 親唐政策이 가속화된다. 이에 따라 당태종의 고구려 침략 야욕이, 연개소문이 왕과 大臣을 죽이고 백성들에게 잔학하게 한다는 구실을 달고 표면화되는 것이다.²⁰⁾ 따라서 중국측 史料는 다분히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三國史記의 기록도 중국사료를 토대로 하였기 때문에 기록의 진실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는 전기서술에서 역사기록과 다르거나 무관한 의도적인 서술이 나올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일례로 兩國開戰의 경위 서술에 있어서 연개소문은 당의 2차 사신 蔣儼을 窟室에 가두고서 역사기록에 없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爾主는 乃父를 劫하야 兵을 擧하고 乃兄을 弑하야 儲位를 奪하고 乃弟를 殺하야 其妻를 取하얏으니 實로 天地에 容치 못할 罪가 有하거늘 反히 他人의 事를 詰코져 하느냐 爾의 國이 雖大하고 爾의 衆이 雖多하나 泉蓋蘇文 劔頭에는 一擊之下에 粉碎를 不免하리니 余는 爾主가 自來하야 離雄을 洪福을 待할 뿐이로다.²¹⁾

이로서 보면 연개소문의 독립적 영웅적 기질과 자존심이 당태종의 親征을 결심하게 만들어 양웅대결의 大戰이 일어나게 되는 것으로 허구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당태종이 安市城戰에 패하여 돌아갈 때 개소문에게 사자를 보내어 弓服을 주었으나 개소문은 唐을 傲視하는 기개를 버리지 않고 ‘개소문이 있으면 백만의 무리도 소용이 없다’고 말하면서 당태종의 퇴로를 추격하지 않는다. 再戰意思가 있다면 언제든지 응전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당태종은 자존심을 크게 상하여 恨怒를 참지 못하고

19) 申采浩, 「朝鮮上古史」, 단재신채호전집 上, 1972, pp. 283-86.

2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2, 탐구당, 1981, p. 502~03.

21) 천개소문전, p. 339.

다시금 遠征軍을 일으킨 것으로 서술된다.²²⁾

여기서는 역사를 움직이는 영웅적 개인의 힘이 크게 강조되고 특히 연개소문의 영웅적 기개가 의도적으로 부각됨을 본다. 그러므로 백암은 역사기록에 얽매이지 않고 영웅의 업적이나 역사적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역사의 흐름에 있어서 국제적 상황이나 민족적 의지 민중적 힘을 과소평가 내지 간과하는 헛점도 부인할 수는 없다.

2) 대외적 승리의 강조

우리 민족의 주체적 독립성을 내세우려는 백암의 作意가 그 근처에 작용하여 對唐鬭爭과 승리는 강조된다. 반면에 당의 승리나 고구려의 패배는 거의 서술되지 않거나 매우 약화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唐軍이 30여 만의 대군으로 밀어닥친 安市城戰에 대하여 백암은 城主 梁萬春을 극구 찬양하는 태도를 보인다. 백암은 〈第四章 安市城主의 大勝捷〉이라 하여 8페이지에 걸쳐 장황한 서술을 하며, 양만춘은 ‘萬古無雙한 獨立人格의 英雄’이요 ‘그의 몸이 곧 萬里長城’이며, ‘大東數千年歷史에 代表의 人物’이다.²³⁾ 이러한 양만춘에 대한 찬양은 연개소문이라는 立傳人物의 主人公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감이 있어 부자연스러움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는 그만큼 백암이 대외투쟁에서의 승리를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안시성 전투의 과정히 자세히 서술되면서 군데군데 허구적 요소가 개입된다. 역사기록에 없는, 당태종이 流矢에 눈을 다쳤다는 野史의 내용도 取擇하였으며 鷄冠山의 鷄鳴寺說話²⁴⁾도 끌어오고

22) 三國史記 高句麗本紀第九 寶藏王上에는 「初帝將遷 帝以弓服賜蓋蘇文 受之不謝而又益驕恣 雖遣使奉表 其言率皆詭誕 又待唐使者倨傲 常窺伺邊隙 屢勅令不攻新羅而侵凌不止 太宗詔勿受朝貢 更議討之」라 하여 개소문이 교만 방자하고 唐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再討伐을 의논했다 하였으니 백암의 서술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23) 천개소문전, pp. 342~43, p. 348.

24) 「讀史新論」, p. 504에 있는 내용보다 더 허구화되고 부연되었다. 鷄冠山은 안시성과 백여 리 거리에 있는데 당태종이 고구려병에게 대패하여 單騎로 獨走하다가 그 산위 草石間에 숨어 하룻밤을 지냈던 遺墟라 함.

있다. 이처럼 고구려의 승리가 강조되는 만큼 당태종의 패배는 ‘天下에 莫大한 羞恥’로 강조되어 그 승패가 뚜렷이 대비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역사기록으로 볼 때 당은 요동전역에서 玄菟·蓋牟·遼東·白巖·卑沙城 등 열 성을 함락시켰고, 遼州·蓋州·巖州의 戶口를 7만 명이나 중국으로 이주시켰다.²⁵⁾ 고구려가 입은 군사적 경제적 피해도 엄청나서, 비록 안시성 승전이 薩水大捷에 못지 않는 의미를 가진다 하더라도 이는 고구려 멸망의 遠因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²⁶⁾ 그러나 백암은 오히려 唐이 이로 인해 국력이 피폐하고 民怨이 큰 것을 강조한다. 또한 고구려는 요동성을 향해 당군이 진격하자 이를 구원하기 위해 新城과 國內城의 步騎 4만을 출동시켰으나 요동성 밖에서 패배했다. 더구나 요동지방의 성들이 차례로 함락되고 당군이 안시성 밖에 진을 치자 北部靺鞨 高延壽와 南部靺鞨 高惠眞으로 하여금 고구려군과 말갈병 15만을 거느리고 안시성을 구원하게 하였으나 이 지원군도 당에 패하고 말았다.²⁷⁾

그런데 백암은 이러한 패전들에 대한 서술을 생략하고 있다. 그리고 <第五章 唐兵의 再來又敗>에서도 두 차례의 당군침략이 모두 패배했음을 말하고 있다.

즉 보장왕 6년에 李世勣과 牛進達 등이 水軍 수만을 거느리고 전함 수백艘로 침입하여, 상륙하는 것을 出兵擊突하여 대소 百餘戰에 당병이 패배, 우진달 등은 單舸를 타고 走還하였다는 서술과, 이듬해 봄에 薛萬徹이 수군 3만을 거느리고 진격, 압록강에 들어와 泊灼城을 공격하다가 계속 패하고 돌아갔다는 서술이 그것이다. 그러나 기록을 보면 우진달·李海岸 등이 만여의 군사로서 바다를 건너 고구려 경내에 들어와 백여 차례나 싸워 石城을 함락시키고 積利城下에서 고구려병 만여 명을 쳐 이기니 死者가 3천이었고 고구려왕이 막리지를 보내어 사죄했다는 것이다. 또한

25) 三國史記 고구려본기 九 참조.

26) 당과의 장기적 전쟁에서 고구려는 10만 이상의 병력손실과 그만큼 숫자의 포로, 60만 석 이상의 양곡과 馬牛 각 5만 필 및 각종 전쟁물자의 손실을 입었다. 前掲, 한국사 2, p.506.

27)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제9 참조.

설만철과 裴行方이 군사 3만여 명과 戰船을 거느리고 압록강으로 들어와 泊灼城南 사십 리에 진을 쳤고 배행방이 박작성주 所夫孫의 步騎 만여 명을 격퇴했으며, 고구려 장수 高文이 군사 3만여를 거느리고 구원했으나 설만철에게 패했다고 기록되어 있다.²⁸⁾

이러한 역사기록과 앞서의 백암의 서술내용을 비교해 보면 그 승패가 반대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사기록에는 모두 당군의 승리를 말하고 있지만 백암은 정반대로 고구려군이 모두 승리한 것으로 서술한 것이다. 이로서 보면 백암이 중국측 사료를 바탕으로 한 역사기록을 재해석하여 오히려 그 이면에 감추어진 역사적 진실성을 파헤쳐 내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백암의 고대사 인식과 주체적 사관에 의한 역사재해석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보장왕 14년(13년의 잘못: 필자)에는 장군 安國을 보내어 契丹을 쳐, 唐을 도운 罪를 묻고 二城을 빼앗았다고 하였으나 삼국사기에는 장수 安固를 시켜서 契丹을 쳤으나 松漠都督 李窟哥가 新城에서 고구려군을 대파했다고 되어 있어 기록과 승패가 서로 반대다. 또 삼국사기에는 唐이 任雅相·蘇定方·蕭嗣業 등을 보내어 35軍이 수륙으로 並進, 8월에 溟江에서 고구려군을 파하고 드디어 평양성을 포위하였으나, 보장왕 21년 정월 龐孝泰가 개소문과 蛇水에서 싸워 전군이 함몰하자 大雪을 만난 소정방이 평양성 포위를 풀고 물러났다고 하여, 결국 소정방이 자발적으로 물러난 것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고구려의 실권을 한 손에 거머쥐고 있던²⁹⁾ 개소문이 조정의 講和論을 일축하고 살수와 안시성싸움의 대승리를 말하면서 결전을 주장하는 것으로 서술하고,³⁰⁾ 삼국사기 金庾信傳의 기록을 참고하면서 상상력을 동원하여 고구려의 승리를 서술한다. 즉 堅壁清野의

28)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제10. 보장왕 下 참조.

29) 백암은 ‘蓋寶藏王朝 二十四年間은 蓋蘇文의 政治時代인즉 許多活動이 皆蓋蘇文의 政略인 줄노 認定할지르다.’라 하였다. 천개소문전, p. 353.

30) 개소문의 입을 빌어 백암은 ‘昔者에 隋兵百萬이 薩水一戰에 生還者가 不過九百餘人이오 唐軍三十萬이 安市大戰에 生還者가 僅千餘人’이라고 말하면서 고구려의 對支那 승전을 강조하고 고구려민의 志勇을 찬양했다.

계를 써서 성을 굳게 지키니 唐兵이 屢戰不利하였는데 雅相은 군중에서 죽고 糧食이 떨어져 신라에게 군량을 조달하게 하였으나³¹⁾ 이미 굶주림에 타격을 받아 불리함을 깨닫고 雪夜에 海路로 귀환하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개소문이 있으면 고구려를 도모할 수 없다는 생각을 唐人들이 가지게 되었다고 서술한다.

백암은 대외승리의 강조와 역사의 재해석 결과 연개소문의 戰略史를 중심으로 한 전기 서술에 있어서 역사기록에 얽매이지 않고 주관적이고 자주적인 民族主體史觀에 따라 歷史的 상상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3) 연개소문의 재평가

백암은 개소문을 다만 武將家나 劍術家로 혹은 殘暴好殺의 人으로 보는 것은 그의 진면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 이유로

……吾國은 始祖東明聖王께서 仙敎를 創立하셨으므로 世世子孫이 此를 奉承하다가 儒佛이 渡來한 後로……廢而不講함에 至하였스니 엇지 國敎를 維持하는 主義리오 하고 道觀을 建築하며 道經을 廣求하고 道家者流를 延致하여 敎理를 講論케 하니 國王이 暇日로 臨幸하여 其講을 聽하시니라³²⁾

라 하여 개소문이 고유한 종교사상인 仙敎 부흥정책의 일환으로 道敎 진흥에 힘쓴 점을 들고 있다. 백암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仙敎를 고구려 시조 東明王이 창립한 고유종교임을 말하고 있다. 역사기록에 의하면 고구려 榮留王 때에 당에서 道敎가 전래되었으나 국가적 종교로 정착되지 못하였고 그후 약 20년을 경과하여 寶藏王 2년에 연개소문의 獻策으로 도교를 존숭하게 된다. 도교는 고유종교가 아니라 당에서 들어온 종교로 되어 있다.³³⁾ 그러나 백암은 그러한 역사기록에서의 도교진흥을 고유종교

31) 三國史記 列傳 金庾信 中に 軍糧運搬의 高초가 나타나 있다.

32) 천개소문전, p. 358.

33) 삼국사기 보장왕 2년조에는, 「三月蘇文曰 三敎譬如鼎足闕一不可 今儒釋並興而道敎未盛 非所謂備天下之道學術者也 伏請遣使於唐 求道敎以訓國人 大王深然之奉表陳請 太宗遣道士叔達等八人 兼賜老子道德經 王喜取僧寺館之」라 기록되어 있다.

내지 국교인 선교의 중흥으로 해석하고, 王도 그 강론을 때때로 들었다고 서술한 것이다. 즉 백암은 도교를 고유한 선교로 해석하여 도교의 부흥이 곧 자주적 종교사상 정책에서 나온 것으로 본 것이다.³⁴⁾

이는 역사의 재해석에 있어서 주체적 史眼이 작용하였다는 점과 또 이미 본교의 「서언」에서 말한 것처럼 백암이 당시 교유신앙인 仙教를 바탕으로 하는 大宗教에 심취해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고구려의 도교진흥책은 對唐 긴장관계를 완화하기 위한 외교적 효용과 전통적 儒佛에 대한 견제, 연개소문의 쿠데타 이후 舊體制의 탈피와 국왕의 전제권 강화라는 정치적 전략적 포석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다.³⁵⁾ 도교진흥책이 고구려의 保衛와 전제정치를 위한 한 방책으로서 추구되기도 하였겠지만³⁶⁾ 도교정책이 종교적 알력과 이데올로기의 분열을 일으키고 나아가 고구려 지배층의 분열을 초래하여 망국의 한 원인이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통설인 듯하다. 그러므로 도교진흥에 관련된 백암의 서술내용은 그 타당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백암이 이처럼 무리해 보일 정도의 역사재해석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만큼 강한 그의 주체적 역사인식을 확인할 수 있고 대중교의 교리를 바탕으로 하여 연개소문의 위대성을 부각시키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백암은 이어서 연개소문의 인물됨에 대한 재평가를 위해 삼국시대의 인물들을 〈結論〉에서 논하고 있다. 그는 金庾信은 國家主義의인 인물이지만 당의 도움을 입어 공을 이루었으니 事大苟安·自強不圖의 先祖가 되며, 薛仁貴는 個人主義者로 공명을 탐하여 조국을 反噬하였으니 매국노의 궤

34) 고구려의 도교진흥에 대한 기록들은 삼국사기 권21 보장왕 2년條와 同49 蓋蘇文 및 삼국유사 권3 寶藏奉老 普德移庵條에 비교적 소상하게 다루어져 있다.

35) 李萬烈, 高句麗 思想政策에 대한 몇 가지 檢討, 혜암유흥렬박사회갑기념논문집, 1971. 그러나 道教尊崇의 일환으로서, 國祚의 연장을 위해 道士들이 국내의 有名山川을 돌아다니며 행한 진압행위와 呪祝作讖이 결국 고구려 지리와 국세의 조사 및 國情偵探行爲였기 때문에 개소문의 도교 수입은 실책이라는 견해도 있다. 柳東佑, 高句麗의 興亡과 宗教關係, 경복대논문집 1, 1956.

36) 車柱環, 韓國의 道教思想, 동화출판공사, 1984. p. 189. 李乃沃, 淵蓋蘇文과 道教, 전북대석사논문, 1983 등 참조.

수라 하였다. 반면에 연개소문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인 면에서 獨立自主者이기 때문에 비할 바 없이 훌륭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즉 백암은 삼국시대 인물평을 통하여 사대주의 노예근성을 비판하고 주체적 독립적 자주성을 최고의 가치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奴隸根性에 대한 비판의식은 이러한 인물평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연개소문의 주체성 향상화를 위한 서술에서도 나타난다. 백암은 신라가 당의 힘을 빌어 백제를 멸망시킨 것이 他族의 노예가 되는 길임을 인식했다. 그렇기 때문에 백암은 연개소문으로 하여금 ‘一舉에 彼唐의 鎮守兵을 擊却하고 新羅의 罪를 討하야 百濟故地를 收復할’ 것을 보장왕에게 청하게 하였고, 이에 고구려가 신라의 七重城을 쳐 함락시켰다고 새롭게 서술하고 있다.³⁷⁾

백암은 고구려가 大武神王 이래 歷代君臣들이 모두 독립정신을 가지고 大國의 땅을 攻取하며 저항했지만 그 멸망원인은 대외항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기에 男生·男建 등이 골육상잔을 전개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나라의 승패존망이 토지의 크고 작음이나 인민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그 나라의 인물과 독립정신 여하에 달려 있다고 인식한 것이다.³⁸⁾

그러므로 ‘독립자주의 힘’과 대외경쟁의 용락을 가진 연개소문은 4천년 역사에 뛰어난 영웅인데 불행하게도 그 英魂이 만고에 常存하지 못하여 조선이 망하고 말았고, 우리의 역사를 부활시킬 자는 ‘영웅’(곧 영웅의 정신)이라고 말하는 것이다.³⁹⁾

37) 역사기록으로는 삼국사기 신라본기 太宗武烈王 7년(백제멸망의 해)條에 다만 「十一月一日 高句麗侵攻七重城 軍士匹夫死之」라고만 되어 있어 고구려의 신라침입 및 신라의 匹夫라는 장수의 戰死사실만 알 수 있다. 백암은 이를 자세히 부연하고 인과관계를 설정, 허구적으로 서술한 것이다. 「천개소문전」, pp. 354-55.

38) 사대주의 및 노예근성을 비판하는 백암의 인물론과 주체적 역사관은, 당의 힘을 빌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金春秋의 외교노선을 통렬히 비판하는 점에 있어서 단재의 「독사신론」과 同軌다.

39) 천개소문전, pp. 359-60.

Ⅲ. 구성과 양식적 특징

「천개소문전」은 우선 전체적으로 연개소문의 인물됨과 업적을 서술하기 위해서, 앞뒤에 〈緒論〉과 〈結論〉을 붙이고 그 중간에 〈第一章 泉蓋蘇文의 幼年志望〉~〈第九章 泉蓋蘇文의 考終〉을 서술하여 결국 전체가 11章節로 나누어지는 셈이다. 〈緒論〉에서는 영웅숭배열의 쇠퇴와 전기 서술의 이유를 밝혔고 〈結論〉에서는 ‘독립자주의 힘’을 강조하면서 三國時代人物論을 피력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리고 그 중간의 실제 사적 서술에 있어서는 연개소문의 활동과 업적, 고구려의 대외투쟁, 그리고 연개소문의 죽음을 서술하고 자신의 영웅대담론을 덧붙였다. 여기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對唐戰役을 비롯한 신라와의 투쟁이 모두 연개소문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는 인식에 의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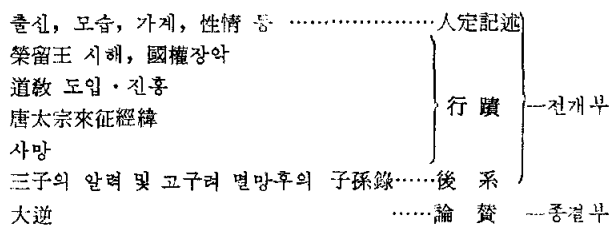
「천개소문전」의 구성은 傳의 일반적 구성인 도입·전개·종결의 3단 구성에 그대로 합치된다. 〈서론〉과 〈결론〉이 도입부와 종결부에 해당하고 행적과 업적을 서술한 부분이 전개부에 해당된다. 구성을 도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緒論	……立傳 의도	—도입부
第一章 泉蓋蘇文의 幼年志望	……家系·人定記述	} 一代—전개부 記
第二章 “ 活動	} 行蹟	
第三章 唐國과 開戰		
第四章 安市城主의 大勝利		
第五章 唐兵이 再來又敗		
第六章 各國과 競爭		
第七章 唐將의 敗還		
第八章 泉蓋蘇文의 宗教思想	……죽음	
第九章 “ 考終	……論贊	—종결부
結論		

그런데 〈서론〉과 〈결론〉이 장황하게 서술되어 입전의도와 교훈성이 議論的으로 확장되어 있고 ‘영웅의 증서’는 〈서론〉, 〈제9장〉, 〈결론〉에 모

두 서술되었다. 전개부에서의 주인공의 행적은 주로 해외투쟁과 그에 따른 허구적 서술 및 서술자의 의논 등으로 이루어진다. 또 종결부에는 史傳에서 흔히 보이는 ‘論曰’, ‘史氏曰’, ‘贊曰’ 등의 評結部 허구의 명칭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삼국사기 列傳의 〈蓋蘇文〉에서는 입전동기나 입전인물과의 관계 등이 서술되는 도입부가 생략되었다. 삼국사기 열전에는 대체로 도입부가 없고, 평결도 생략되는 수가 많으며 家系나 生沒도 생략되는 수가 있다. 즉 ‘가계·출생→업적→죽음(妻子孫錄)→(평결)’의 형태가 많이 나타난다.⁴⁰⁾ 삼국사기 〈개소문〉은 주로 중국측 사료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逆臣傳으로 취급되어 있다. 그 구성을 간단히 보면 다음과 같다.



「천개소문전」과 〈개소문〉은 우선 기술태도에 있어 전자는 ‘褒’, 후자는 ‘貶’의 입장을 취한다. 「천개소문전」은 史實과 인물의 활동에만 국한하지 않고 영웅성과 독립자주성, 내외승리 등을 강조하여 허구적 서술과 議論이 많이 개입되었고 대외투쟁에 대한 서술이 많아졌으며, 열전에 보이는 고구려의 멸망과정과 내분을 일으켰던 자손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모두 빠졌다. 반면에 열전에서는 ‘貶’의 입장에서 사료들을 배열하되 의논이 없고 대역에 대한 평결이 분명하여 ‘忠’을 역설적으로 교시하려는 의도가 나타나 있다.

「천개소문전」이 형식상 한문학의 한 양식인 전통적 전양식을 계승하고 있으나 그 서술양상이나 태도에 있어서 전의 본질적 속성과는 상당히

40) 金均泰, 傳의 장르적 考察, 雨田辛鎬烈先生古稀記念論叢, 1983.

朱明姬, 「三國史記列傳」을 통해 본 初期 傳의 樣相, 백영정명옥선생환갑 기념논문집, 신구문화사, 1983 등 참조.

차이가 있다.

전은 한 인물의 생애를 기술하여 후세에 전함으로서 삶의 규범적 가치나 도덕적 진실성을 교훈적으로 제시하려는 목적을 가진 산문 서사문학의 양식이다. 때문에 전은 사실위주의 서술을 취한다. 전이 사실에 충실하지 않고 서술되면 사실의 진실에서 벗어나 소설적 속성인 허구적 진실에 접근하게 된다.⁴¹⁾ 이처럼 전은 사실에 근거하면서 후세에의 감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記事와 그에 대한 議論이 아울러 서술되는 양면성을 가진다. 만약 인물행적의 기록이 부족할 때는 의논위주의 서술이 되어 變體의 전 즉 變傳이 되기 쉽다. 신채호의 「乙支文德」(1908)은 극단적 변전의 하나로 볼 수도 있다. 또 「李舜臣傳」(1908), 「崔都統傳」(1909~1910)으로 갈수록 허구성을 많이 띠게 되어 엄밀한 의미에서 전양식의 본질적 속성에서 멀어지고 있다. 「천개소문전」은 연개소문이 少年에 中原天子를 꿈꾸고 증원에 갔으나 李世民의 英氣에 놀리어 돌아왔다는 이야기나 鷄冠山傳說 등을 비롯한 야사·설화 등을 이용함으로써 傳的 事實性을 벗어난다. 또 당태종의 고구려 親征 이유를 두 영웅의 대결이라는 차원에서 해석하고, 친정 실패 후 수차 당병이 침입, 고구려군을 이겼다는 중국측 사료에 의거한 제반 기록을 무시하고 오히려 고구려의 승리로 서술하여 기록 배후에 숨어 있는 '史實'을 새롭게 구현하려 했다. 뿐만 아니라 도교전홍책도 새로이 해석했는데 이러한 점들은 모두 「천개소문전」이 사실성에 바탕을 두었다기보다는 백암의 史觀 및 역사적 상상력의 소산에 의한 허구적 서술, 역사재구성 그리고 많은 의논이 서술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들이다.

백암은 독립자주의 가치를 규범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事大性이나 무사안일, 배국노적 노예성을 타기하고 자주적 주체적 의지에 의한 민족의 운명개척 열원을 '영웅'을 통해 구현된 것으로써 알 수 있다.

「천개소문전」이 전양식을 취하고 있지만 전통적 전과 동일한 부류로 취

41) 성기옥, 「傳」의 장르론적 검토, 울산어문논집 1, 울산공예 국문과, 1984 참조.

급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오늘날과 같은, 허구적 진실을 통해 삶의 의미를 구현하는 소설도 아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전과 소설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다.⁴²⁾

단재나 백암의 전기문학이 張志淵의 「애국부인전」이나 「서사전국지」에 비해 소설성이 덜하기는 하지만 전의 서술규범을 벗어나 의논이 많고 허구성도 많이 개입되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소설로서의 치밀한 구성이나 형상력, 묘사, 서사적 재구성의 면에서는 미흡하다.

이러한 양식적 변화가 나타나게 된 원인으로서는 작가들의 역사 및 현실 상황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전통적 傳文學을 창작했던 사람들의 그것에 비해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도 지적돼야 할 것이다. 전은 유교사상에 입각한 양식이다. 전이 경전의 해석과 전수라는 기능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것이 유교사상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단재나 백암은 유교적인 정통적 名分論과 春秋等法에 의한 역사기록을 비판하고 현실 상황에 대한 투철한 인식과 反事大反尊華의 大條敎의 민족 주체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전통적 유교사상과는 큰 차이가 있다. 단재의 개혁적 역사의식과 주체적 민족사관이나, 백암의 「儒敎求新論」을 비롯한 주자학으로서의 유학에 대한 비판과 慕華의 노예사상, 노예학문으로부터의 탈피를 외친 史學思想 및 敎育思想⁴³⁾ 등은 모두 전통적 유교사상에 대한 변혁의 모색을 말해 준다. 이러한 작가의 의식과 가치관 및 그 실천의지는 傳 본래의 사실기록과 감계적 효용의 기능을 통해 강하게 드러나면서 새로운 가치의식을 구현하려 했기 때문에 전통적 전양식의 變改를 수반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 결과 역사재해석과 허구적 인식 및 의논이나

42) 그래서 「최도통전」이나 「천개소문전」 등이 전의 서술규범을 벗어나 현대적 역사소설에 한층 접근하고 있다거나(姜玲珠, 愛國啓蒙期の 傳記文學, 전환기의 동아시아 문학, 장작과 비평사, 1985, p.193), 전양식이 소설양식으로의 확대화에 도달하는 변화물 보여주고 있다(權寧珉, 申采浩의 小說改革論과 그 限界, 韓國現代小說史研究, 민음사, 1984, p.102)고 평가되기도 한다. 이는 결국 시대적 요구에 의해 나타난 전의 발전적 새로움이라 할 수도 있다.

43) 李萬烈, 白巖 朴殷植의 生涯와 思想, 朴殷植, 한길사, 1980 참조.

화자의 개입이 필연적으로 많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므로 교시성을 나타내기 위해 전양식을 이용하면서도 그 계몽성과 주제의식의 강렬성에 의해 변모된 모습의 양식적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백암과 단재의 전기문학이라 하겠다.

IV. 결 언

본고에서는 백암 박은식의 「천개소문전」을 분석하여 역사기록과 대비해 봄으로써 그 허구적 상상력의 가미와 작자의 역사의식에 의한 사료재해석적·反記錄的인 면모를 밝히고 아울러 그 傳的 구성과 양식적 특징 및 그 변화의 원인에 대하여 논급하였다.

백암의 영웅사관과 독립자주성의 강조는 연개소문의 영웅성 부각과 역사의 재인식에 따른 허구화의 원천이 되고 있다. 백암이나 단재의 전기문학을 중심으로 한 개화기의 전기류들은 당대의 역사적 상황과 주체적 역사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구제의 영웅대망론에 기울어져 있음이 사실이며, 삶과 역사에 대한 주체적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간상과 가치규범을 제시하려는 주제의식이 전양식을 이어받게 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주제성의 과잉은 전의 사실적 서술규범에서 이탈하여 많은 의논과 새로운 역사해석의 變體를 유도했다. 그리하여 역사를 꿰뚫어 보는 혜안과 통찰력에 의한 역사재해석의 탈역사기록적 진실성을 추구함으로써 脫傳樣式의 경향을 낳았다.

「천개소문전」은 영웅상 부각과 역사의 낭만적 개인화로 역사관의 편향성을 보이고, 독립자주와 대외승리의 강조로 승패가 역사기록과 정반대로 서술되었으며 연개소문의 인간성, 인격도 새롭게 조명되는 등 전 자체의 사실성이라는 본래적 속성에서 멀어져 소설적 허구성을 다소 가지고 있는, 전과 소설의 중간적 서사양식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식적 특질은, 유교적 가치관에 대한 전기작자들의 비판적이고 개혁적인 의식과 對現實的 제

몽성·효용성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전통적 양식의 답습에 그치지 않고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결국 전통적 전양식의 발전적 계승이며 근대역사소설에로의 변모과정이라 할 수 있다.